

김-문, 재보선 성적표에 '정치미래' 달렸다

〈우성〉 〈재인〉

與 승리맨 김, 성완중 약재 돌파 여권내 입지 굳혀져

野 승리맨 문, 대권주자 위치 확고 당내 리더십 강화

4·29 재보선이 턱밑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두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성완중 파문'의 대형 약재를 돌파하고 여권내 차기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경우 문 대표는 당내 리더십 강화는 물론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서 순항을 예고하게 된다.

김 대표는 선거 초반 '중복 심판론'을 기치로 내걸면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다가 '성완중 블랙홀'에 모든 이슈들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김 대표는 위기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성완중 메모' 발견 후 야당도 대선자금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전선을 확대시킨 데 이어 선제적 특검 카드, 이 총리 조기 사퇴 불가피론,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성완중 특사 의혹 제기 등을 주도하며 국면을 전환하는데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던 당일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긴급 회동을 가진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4·29 재보선은 김 대표 정치 행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4곳 가운데 2곳이라도 건진다면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덧붙인' 인연 서·강화를 거쳐 야당에 내주고 3패 이상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김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전패 시나리오는 내년 총선을 앞둔 당 소속 의원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설사 재보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원인이 예상치 못했던 '성완중 파문' 탓이라는 점에서 김 대표 체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의 성적표에 따라 자신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초반전 당 안팎에서 어른거리던 '0대4' 전패 위기감은 '성완중 파문'으로 전승 전방으로까지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느 한 곳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분열구도가 여전하고 문 대표의 야권 내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리한 국면이 '성완중 특별사면 의혹'으로 오히려 수세로 바뀌면서 패배할 경우 그 책임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사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력한 대선후보로서의 입지도 위협받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권심판론이 힘을 잃으며 성완중 정국을 계속 끌고 갈 대어동

력도 약화할 수 있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패배한다면 더 많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경우 비노(비노무현) 정세가 여전히 깔려 있는 텃밭 민심 회복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문 대표 앞에 묵직한 짐으로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호남신당론'이 가시화하면서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2곳 이상에서 이긴다면 문 대표 체제는 당분간 큰 혼란없이 갈 수도 있다. 문 대표 개인으로서도 당분간 야권 대권주자 경쟁에서 독주체제를 구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24일 유권자들이 빛고을 국악전수관 1층에 마련된 금호2동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서울 사전투표율 9.29% 최고... 치열한 점진 예고

각 후보 조직 투표 동원 관측도

재보선 4곳 최종 7.60% 기록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에서 9.29%를 기록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최종 7.60%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지난 24~2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71만2696명 가운데 5만4191명이 참여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치러져 '미리 총선'이라고 불렸던 지난해 7·30 재보선의 사전투표율 7.98%와 비교할 때 0.38%포인트 차이로 약간 낮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 서구를 선거구 등 일부 접전지는 9%대의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승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되는 광주 서구의 사전투표율이 9.29%(1만1435명)로 가장 높았다.

광주 서구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배경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의 조직 동원도 상당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의 경우 중앙당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의 지원 속에 당원 등을 중심으로 한 투표 독려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도 반(反) 새정치연합 중심의 조직이 상당 부분 투표에 참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박방' 승부를 벌이는 인천 서·강화율은 7.65%(1만2970명)가 뒤를 이었

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야권에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격돌하는 서울 관악구는 7.39%(1만5550명)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서 후보,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미희 후보가 경쟁하는 경기 성남 중원은 6.79%(1만4236명)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국회의원 4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7곳 등 이번엔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 12곳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인 98만4384명 가운데 6만6315명이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은 6.74%를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귀국 후 ‘성완중 파문’ 사과”

김무성 대표 밝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26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기 성남중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27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한 질문에 “검찰수사 진행과 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언제든 받아들일 수용의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라도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기 위한 원내대표간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를 갖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자기당착적인 생각”이라며 별도의 특검 법안 마련은 거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서울 관악을 유세에서는 “성완중 사건이 국민 여러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실망을 끼쳐 당 대표로서 100번이라도 여러분께 사죄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 청와대 독대에서 성완중 파문과 정치 개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모종의 교감이 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차기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령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지난 23일 광주 서구를 유세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호남 출신 총리’를 상기시킨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성격과 관련, “내란을 선동하고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분자들이 우리 국회로 진출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 큰 사건”이라며 “그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당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척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데도 불로 5개월 만에 가석방되고, 또 2년 만에 특별복권됐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거듭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내달 방북... 남북관계 훈풍 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사진)의 다음 달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승인(간접접촉)을 받아 북측에 이희호 여사 방북을 위한 사전접촉을 개성에서 갖자고 (백승리) 제안했다”며 “북측은 ‘지금도 북측만 상황이 있으니 추후 연락하자. 이 여사가 오시는 것은 여전히 유호하다’고 지난주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5월 말로 이 여사의 방북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북측의 답변을 기다

려보고 연락이 없으면 우리 측에서 재차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가 다음 달 말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박주선 “시·도교육청 국유지 사용 변상금 145억 달해”

소속 초·중·고교가 중앙부처 땅을 허가받지 않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된 변상금이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를 점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광주·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600만원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86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 및 중앙부처의 땅 74만7937㎡(재산가액 3330억3000만원)를 점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